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동향 분석*

백예은** · 정혜원***

Ⅰ 알기 쉬운 개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흐름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는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환경',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진로발달과 정책',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의 네 가지 주요 토픽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이 수립되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이 정책적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에 해당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토픽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빈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과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 A17087372).

** 충남대학교, 박사수료, byeunn7@gmail.com

*** 충남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투 고 일 / 2025. 3. 10.
심 사 일 / 2025. 6. 10.
심사완료일 / 2025. 6. 18.

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처음 발표된 201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우수 등재, 등재, 등재 후보지 학술지에 등재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120편의 논문 초록을 분석 텍스트로 설정하였다. 논문의 초록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하고, 토픽 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간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가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흐름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발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논문 발행 건수가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나, 201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목과 초록에 대한 빈도 기반 분석 결과, '진로 결정'이나 '진로 장벽', '가정', '교육'과 같이 진로발달을 나타내는 요인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에 대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 환경',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진로발달과 정책',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4개의 토픽으로 유형화되었다. 넷째, 초기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개인 및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 2, 3차 다문화가족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사회문화 적응과 진로 지원 정책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 빈도 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그간 미비하게 이루어진 연구들에 대하여 제언함으로써 향후 논의되어야 하는 연구 방법 및 주제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텍스트마이닝, 토픽 모델링, 키워드 네트워크

I. 서 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교육이 강조되면서, 그간 진로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를 의미한다(양계민 외, 2020). 이러한 이주배경청소년은 비이주배경청소년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진로 장벽을 경험할뿐더러 언어 문제나 본국에서의 학력과 우리나라에서의 학력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기초학력 부족이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진로 장벽을 경험한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가족실태 조사 결과’에서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격차가 2018년도의 경우 18%p에서 2021년 31%p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 국민 전체 취학을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4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취업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취업률의 경우 18.6%로, 전체 취업률인 26.2%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형준, 2019). 더불어 변숙영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비이주배경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행동 수준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최근 비이주배경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교육 내의 진로교육이 특수한 진로 장벽을 경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b). 또한 교육학계 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진로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어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지원책에 대한 정책·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김지연, 이윤희, 2019; 선혜연, 2015), 2020년 이후로는 최근 연구 동향을 탐색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는 분석 시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는 문헌 고찰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은 양의 논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되어온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 흐름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 틀에 의하여 문헌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동향 분석 방법과 달리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연구 동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다(윤희진, 2020). 구체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은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등의 기법을 통하여 시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Feldman & Sanger, 2007).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토픽간 중심성 및 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각 토픽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토픽의 연구를 통해 수행된 연구 대상과 방법 설정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과 적용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의 후속 연구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2010년을 기점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흐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2010년~2012년에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3년~2017년에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년~2022년에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 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과 더불어 교육부의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 방안이 발표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주기별 변화한 지원 정책과 연구 동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의 주요 토픽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3.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의 주요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연구 대상·방법 빈도 분포 등의 토픽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의 정책 흐름에 따른 주요 토픽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칭하는 집단에 대한 정의와 분류 체계가 관련 법 및 정부 부처별로 상이하게 쓰이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 타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소수의 문화적 배경을 지칭하는 수식으로 ‘다문화’를 사용한 것이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과 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가정의 자녀’와 ‘한국인 귀화자 결혼가정의 자녀’ 중 24세 이하를 ‘다문화가족자녀’로 지칭한 것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법정 정의로 사용되며 한동안 해당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협소한 지원범위 외에도 난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와 같이 다양한 배경의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불어 문화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다문화’라는 수식어가 비이주배경의 한국 가정을 단문화 가정임을 전제하는 차별적인 단어일뿐더러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논의되었다(장한업, 2021; 양계민 외, 2021; 양계민 외, 2020). 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migrant background youth)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평가의 의미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의 다수의 연구에서도 혈통 개념의 ‘다문화’ 수식어 보다는 중립적으로 이민 여부에 초점을 둔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이민경, 이수정, 2011; 장한업, 2021). 교육부에서도 또한 이번 2023년을 기점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그간 사용해온 ‘다문화 학생’ 대신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들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이주배경아동(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이라는 표현을 국제 문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EU 국가에 거주 중인, 현 거주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자녀로 (부모가) 제3국 국민이거나 다른 EU회원국의 시민이거나, 또는 이후에 거주 중인 회원국의 국민이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신윤정 외, 2018; European Union, 2009). OECD는 ‘이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s)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①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이 해외

출생 이주민인 국내 출생 자녀, ②해외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아동, ③해외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성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OECD & EU, 2015).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범주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계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인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에 따라, ① 본인의 출생지(국내, 국외) ② 부모의 배경(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지원 대상인 ‘다문화청소년’으로 지칭되는 집단이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현장에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지칭되는데 귀화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된다.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외국국적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미등록, 무국적과 같은 문제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유형에 해당된다(양계민 외, 2020).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에서의 ‘이주’는 외국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포함되는 개념으로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 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모두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되는데 특히 ‘제 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의 경우 현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된다(양계민 외, 2020).

표 1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분류

부모배경 \ 본인출생지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부모배경 \ 본인출생지	남한 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생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제 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출처: 양계민, 변수정, 조혜영, 김이선, 이민영(2020).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동향 선행연구

진로발달이론을 연구한 Super(1957)는 인간의 진로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 욕구, 가치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학교, 친구관계, 사회와 같은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로발달 과정의 특성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 내적 및 외적 요인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류성창, 김재우, 이윤옥, 2016; 변숙영 외, 2022; 오성배, 서덕희, 2012;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이나(고상숙, 2018; 권희연, 김미선, 박중휘, 2016; 안지민, 장훈성, 2021 등)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진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연구(김영식, 정성수, 이기정, 2019; 홍영균, 2017 등)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 동향을 탐색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2015)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남성과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집단의 학생들의 진로를 대상으로 수행된 논문 23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 진로흥미, 진로포부와 같은 진로관련 변인들과 학생의 심리적 특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진로발달과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모와의 관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나 일반 가정 학생과 비교연구가 다수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과 이윤희(2019)의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다문화’와 ‘진로’를 핵심어로 포함하고 있는 53편의 연구 논문에 대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에 의해 논문을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방법별 게재 현황에 따르면 조사연구와 질적연구가 전체 연구의 47.2%,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조사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차이 비교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주제별 게재현황을 살펴본 결과 진로 장벽과 같은 진로 관련 변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의 맥락체계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거시체계의 관점에서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진선과 김영순(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연구를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탐색하였다. 이에 ‘다문화’, ‘진로’, ‘진로상담’을 핵심어로 설정하여 선정된 논문 58편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와 같은 분석범주를 설정하여 논문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연구주제의 경우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태도와 같은 진로 관련 변인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으며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인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이 그간 어떠한 연구방법과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최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년~2027년)」을 발표하는 등 현재 교육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시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 동향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동향 분석 시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는 전통적인 문헌 분석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그 분류 기준이 달라지고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연구 동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최근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우수 등재, 등재, 등재후보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초록을 분석 텍스트로 설정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 또는 본인이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를 일컫는 용어로 현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외국인가정자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18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참고하여 논문 검색 시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학생’, ‘외국인가정학생’,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과 ‘진로’ 가 초록에 함께 포함되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문 수집 일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책을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 시기인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2024년 12월까지 약 15년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수집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0편의 논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에 내포된 유용한 정보의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이다(Inzalkar & Sharma, 2015). 이때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시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이러한 분석 기법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그 분류 기준이 달라지고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도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토픽 모델링과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들의 주요 토픽이 어떻게 나타나고 토픽 키워드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토픽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각 토픽에서 주로 다뤄진 연구 대상과 활용된 연구 방법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이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텍스트를 논문의 초록으로 설정하고, 분석 언어는 한국어로 지정하여 품사가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이에 추출된 키워드에 대하여 지정어(defined word), 제외어(exception list), 동의어(thesaurus)를 지정하여 추출된 키워드를 전처리하였다. 우선 지정어란 복합명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추출되도록 설정하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 입국’, ‘다문화 교육’, ‘이주 배경’, ‘이중

문화’, ‘이중문화 수용태도’등과 같은 단어를 지정어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외어란 텍스트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설정하는 키워드를 의미하는데, 키워드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단어들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으로 결과, 결론, 시사점, 년도, 지원, 본인, 학년, 목적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논문 수집 시 검색어로 활용하여 대부분의 논문에 출현하는 단어인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진로’ 또한 제외어에 포함시켰으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과 같은 키워드는 제외어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의어를 설정하여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사’를 ‘교원’, ‘선생님’의 동의어로, ‘친구’를 ‘또래’, ‘교우’의 동의어로, ‘가족’과 ‘가정’, ‘학업’과 ‘학습’을 동의어로 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키워드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빈도 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와 TF-IDF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기준으로 단어의 순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화한 자료인 워드클라우드를 도출하였다. 이때 TF-IDF란 특정 문서 자료 안에서의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로, 높은 TF-IDF 값은 대부분의 데이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빈도는 낮고 특정 문서에서의 출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송민, 2017). 이에 단어의 출현 빈도와 TF-IDF 값을 기준으로 한 단어의 순위를 산출하고, 이러한 빈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워드클라우드를 제시함으로써 그간 수행된 연구들의 전반적인 연구 주제 키워드들을 파악하였다.

3) 토픽 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은 비정형적인 문서 자료의 단어들을 분석함으로써 자료에 잠재되어 있는 단어들의 의미 구조 즉 주요 토픽들을 도출하는데, 이때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클러스터링 (clustering)하여 주요 토픽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의 여러 기법 중 각 문서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토픽과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송민, 2017). 이를 통해 연구자는 도출된 각 토픽별 키워드의 비중을 고려하여 각 토픽의 이름을 명명하여 문서들의 잠재된 의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LDA 기반의 토픽모델링의 경우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토픽의 개수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토픽과 관련이 높은 단어들이 함께 사용된 문서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 토픽 내 응집도(coherence) 지표와 더불어 실제로 각 토픽에 분류된 논문을 검토함으로써 결과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 시 연구자가 조정하여야 하는 하이퍼파라미터인 α (alpha), η (eta)를 조정하여 응집도를 기준으로 적절한 토픽의 수를 탐색한 뒤, 각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와 토픽에 할당된 논문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서별 토픽 분포에 대한 디리클레분포의 파라미터인 α 와 토픽별 단어 분포에 대한 디리클레 분포의 파라미터인 η 의 경우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python 프로그램 gensim 라이브러리의 'auto' 옵션을 사용하였다. 해당 옵션은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사전에 잘 모르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토픽의 수에 따른 응집도를 확인하고(Rehurek & Sojka, 2011) 토픽에 할당된 논문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문서 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Drieger, 201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단어 즉, 키워드를 의미하는 노드(node)와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edge)로 구성되는 시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키워드 간 연결된 링크를 확인함으로써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Landherr, Friedl & Heidemann,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망을 해석하는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중심성(centrality)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심성이란 해당 키워드가 연결망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 이러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내포하는 핵심어로 해석된다. 더불어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간 문장 내 동시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가중치를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로 시각화함으로써 해당 키워드가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토픽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토픽들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어떠한 관계성을 띄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python 프로그램(ver. 3.9.13)을 활용하였으며 형태소 분석에는 kiwipiepy 라이브러리(ver.0.17.1)를, 빈도분석에는 collections(ver.3.3), wordcloud(ver.1.9.3)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토픽 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각각 gensim(ver.4.3.2), networkx(ver.3.3)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으며, Gephi 프로그램(ver.0.10.1)을 통해 키워드 네트워크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빈도 분석 및 키워드 추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논문은 총 120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논문 발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논문 발간 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2013년(2편), 2018년(8편)을 거쳐 2022년에 18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제 3차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된 3기에서 논문 편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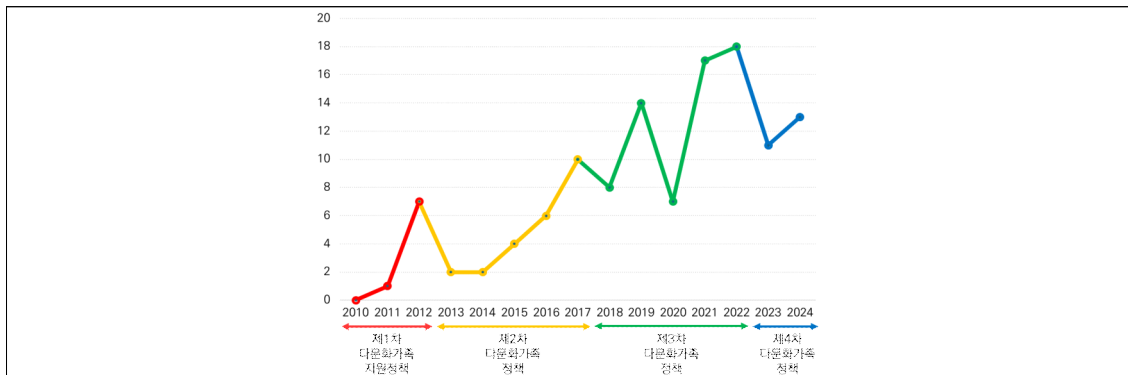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논문 발행 건수

이에 논문 제목에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단어의 출현 빈도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이나 ‘진로 장벽’과 같이 진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 중 하나인 ‘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교육’, ‘경험’, ‘인식’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그림 2. 논문 제목 워드 클라우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 초록에 등장한 키워드에 대해 단어의 출현 빈도와 TF-IDF 기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워드 클라우드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2의 논문 초록 키워드 출현 빈도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근접한 맥락의 환경인 ‘가정’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교육’, ‘경험’, ‘인식’의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에서 주요 키워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해당되는 ‘학교’, ‘사회’와 함께 ‘정책’, ‘프로그램’, ‘진로교육’과 같이 진로발달에 대한 교육적 개입 방안과 관련된 키워드 빈도 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업’, ‘적응’, ‘진로 장벽’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키워드 또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한편, 다른 논문의 초록에 비해 특정 논문의 초록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TF-IDF 기반 빈도를 분석한 결과, TF-IDF 기반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특정 연구에서 핵심적인 연구 키워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에 빈도 기반 단어 순위와 종합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빈도 기반 단어 순위에서는 상위 1~3위 단어로 도출된 ‘가정’, ‘요인’, ‘교육’ 키워드의 경우 TF-IDF 기반 빈도에서는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지 않아, 해당 키워드의 경우 특정 연구 주제를 나타내기보다는 다수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일반적인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은 높은 빈도와 더불어 TF-IDF 기반 단어 순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 ‘상담’과 같은 교육적 개입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 빈도 수에서도 도출된 ‘교육’, ‘진로교육’의 보다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논문 초록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빈도 기반 단어 순위						TF-IDF 기반 단어 순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비율	단어		비율
1	가정	127	11	프로그램	88	1	중도입국청소년	.45	11	입지	.17
2	요인	127	12	정책	85	2	한국어 교육	.28	12	동네	.17
3	교육	126	13	진로교육	83	3	상담	.19	13	창업가	.17
4	경험	119	14	학업	82	4	학교	.18	14	국어	.16
5	인식	110	15	차이	81	5	마을	.17	15	진출	.15
6	학교	107	16	진로결정	79	6	교양	.17	16	연결	.15
7	진로장벽	106	17	자녀	77	7	차포자기	.17	17	인력	.14
8	사회	102	18	관계	74	8	컨설팅	.17	18	유학	.14
9	직업	100	19	적응	68	9	해외	.17	19	자격	.13
10	중도입국청소년	88	20	부모	68	10	제3국	.17	20	입학	.13



그림 3. 논문 초록 워드 클라우드 (빈도기반, TF-IDF 기반)

2.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가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α 와 η 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gensim 라이브러리의 ‘auto’ 옵션을 사용하였으며, 토픽의 개수에 따른 토픽 내 응집도를 확인하였다(Rehurek & Sojka, 2011). 그 결과 토픽의 개수가 4개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 토픽별 토픽 키워드와 할당된 논문을 점검하여 토픽 내에서는 유사하고, 토픽 간에는 차이가 있게 구분되었는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토픽의 개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이에 분류된 토픽별 토픽 키워드와 각 토픽에 할당된 논문의 빈도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분류된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의 경우 ‘요인’, ‘일반 가정’, ‘직업’, ‘관계’, ‘부모’, ‘진로장벽’, ‘인식’, ‘성취동기’, ‘차이’, ‘발달’ 이 토픽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타 토픽과 특징적으로 ‘일반 가정’, ‘부모’, ‘성취동기’ 와 같이 가정과 개인 요인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도출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토픽에 할당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부모의 양육 효능감(경예나, 박선영, 2021; 윤홍주, 최효식, 2020), 방임적 양육태도(민장배, 송진영, 2024; 이래혁, 장혜림, 2021), 애착(이지민, 오인수, 2013),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연은모, 최효식, 2019) 등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일반 가정) 간의 직업 포부, 진로정체감과 같은 진로발달 특성 및 수준을 비교한 연구(김민정, 정미경, 2014; 남연주, 안상근, 2017) 또한 수행되었다. 개인의 내적 특성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또한 해당 토픽에 할당되었는데, 성취동기와 진로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경예나, 박선영, 2021; 김민수, 하수경, 2022; 이형하, 2023 등). 이에 따라 해당 토픽을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 환경'으로 명명하였으며 31.7%의 논문이 해당 토픽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2의 경우 '요인', '학교', '진로결정', '적응', '진로장벽', '가정', '변화', '발달', '정책', '초기'가 토픽 키워드로 도출되었는데, 타 토픽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을 둘러싼 발달 환경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학교', '가정'이 도출되었으며 '적응'을 비롯하여 '진로결정', '진로장벽'과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토픽 2에 할당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탐색 경험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양경은, 이령, 2024; 전경숙, 2017; 최보람, 유진이, 2016 등)와 더불어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문희정, 김은예, 2021), 문화적응(이래혁, 이재경, 2021), 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이(박송주, 이보라, 2021; 장은지, 2021; 정윤희, 전주성, 2019 등)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을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으로 명명하였으며 해당 토픽에는 33.3%의 가장 많은 논문들이 할당되었다.

토픽 3의 경우 토픽에 할당될 확률이 높은 키워드로 '인식', '정책', '지역', '가정', '진로교육', '어려움', '방향', '이주', '문제', '참여'가 토픽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제로 토픽 1에 할당된 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 방안을 다루는 연구들이 할당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진로 및 직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문헌을 검토하거나(김무정, 장사형, 2017; 홍영균, 2017),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류성창, 김재우, 이윤옥, 2016; 문희정,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이와 더불어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김영식, 정성수, 이기정, 2019; 이민철, 조현구, 2023) 또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토픽 3을 '진로발달과 정책'으로 명명하였으며 해당 토픽에는 약 20.0%의 연구가 할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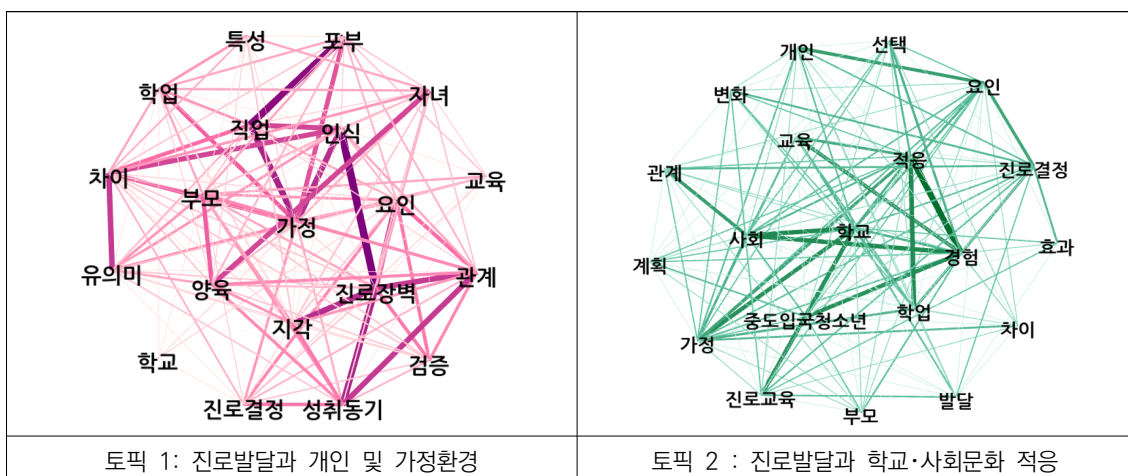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토픽 4의 경우 '프로그램', '정책', '직업', '적응', '선택', '상담', '학업', '학교', '진로준비행동', '방법'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논문이 할당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토픽 4에 할당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진로 교육과정이나 진로 교수·학습 프로그램(류성창, 김성기, 이윤옥, 2017; 진의남, 김선희, 2012), 진로 진학상담, 진로집단상담,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진로 외의 리더십 프로그램, 수학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연구들(고상숙, 2018; 권희연, 김미선, 박중휘, 2016; 안지민, 장훈성, 2021 등) 또한 해당 토픽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토픽 4를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으며 해당 토픽에는 15.0%의 논문이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토픽 키워드 (상위 10개)	논문 빈도(%)
토픽 1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 일반 가정, 직업, 관계, 부모, 진로장벽, 인식, 성취동기, 차이 발달	38(31.7)
토픽 2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요인, 학교, 진로결정, 적응, 진로장벽, 가정, 변화, 발달, 정책, 초기	40(33.3)
토픽 3	진로발달과 정책 인식, 정책, 지역, 가정, 진로교육, 어려움, 방향, 이주, 문제, 참여	24(20.0)
토픽 4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책, 직업, 적응, 선택, 상담, 학업, 학교, 진로준비행동, 방법	18(15.0)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토픽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토픽별 연결 중심성이 높아 해당 키워드가 다른 주요 키워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당 토픽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에 그림 4에서 키워드는 노드로 표시하고,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동시 출현 빈도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굵기로 시각화하였다. 즉, 키워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굵고 진할수록 문장 내에 동시 출현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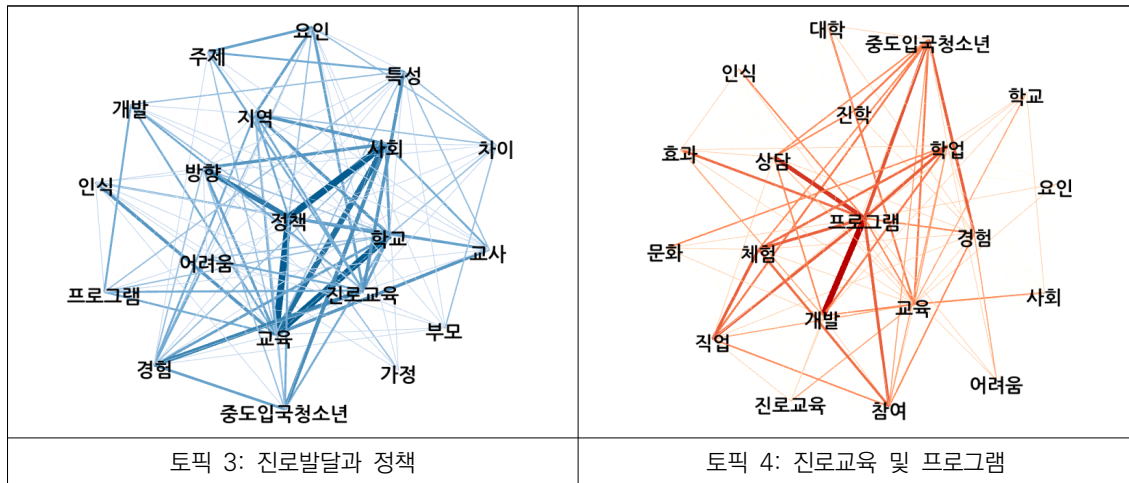


그림 4.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토픽 1(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환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토픽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진로발달을 나타내는 ‘진로장벽’과 더불어 ‘부모’, ‘양육’과 같이 가정 내 부모 관련 키워드와 ‘학업’, ‘성취동기’, ‘포부’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나타내는 키워드 등의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 키워드에 대하여 ‘부모’, ‘양육’, ‘자녀’ 키워드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굵게 나타났으며 ‘진로장벽’과 ‘성취동기’ 간, 그리고 ‘직업’, ‘포부’ 간 키워드 노드 간 선 또한 굵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픽 1에 할당된 논문들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요인과 더불어 부모의 지지, 양육 태도와 같은 가정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사회’, ‘가정’, ‘경험’, ‘적응’의 순서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발달환경을 나타내는 키워드(학교, 사회, 가정)과 더불어 ‘적응’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른 토픽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특히 ‘적응’ 키워드에 대하여 ‘경험’, ‘학업’ 키워드를 연결하는 선이 굵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적응 경험, 학업 적응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키워드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학교·사회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을 살펴보면, ‘교육’, ‘사회’, ‘정책’, ‘진로교육’ 등의 키워드가 토픽별 연결 중심성이 높았으며 특히 ‘정책’ 키워드의 경우 ‘방향’,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프로그램’, ‘진로교육’ 과 같이 정책 내 세부적인 지원 방향을

나타내는 키워드 또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참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한 연구가 해당 토픽에 할당된 것이 시각화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토픽 4(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교육’, ‘학업’, ‘상담’, ‘개발’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직업’, ‘활동’, ‘참여’와 같이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인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 ‘체험’, ‘참여’와 같은 키워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다루고 있다면 토픽 4의 경우 학교나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해당 토픽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토픽 3과 구분된다.

4. 토픽별 연구 동향 분석

각 토픽별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빈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토픽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토픽별 연구 대상을 표 4에, 연구 방법을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픽 네 가지 모두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행한 연구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과 북한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각 토픽별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토픽 1(진로발달 개인 및 가정환경)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11건으로 다른 토픽과 달리 다수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간 직업가치관 등의 진로 관련 의식이나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의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비율이 타 토픽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13건),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의 경우 진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나 현장 전문가,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및 지원 체계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토픽별 연구 대상(주제) 분류

연구대상 \ 토픽	토픽 1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환경	토픽 2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토픽 3 진로발달과 정책	토픽 4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하위유형 미분류	23	20	15	11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중도입국청소년	3	13	7
	북한배경청소년	1	5	1
	고려인청소년	0	1	1
	비이주배경청소년 포함	11	1	0
그 외 대상	학부모	0	0	1
	(예비) 교사 및 현장 전문가	0	2	1
	이주배경청소년, 교사, 학부모	0	1	2
				0

1) 문헌분석의 경우, 문헌의 주제에 따라 연구 대상을 분류하였음

예: 중도입국청소년 진로 및 진로교육 관련 연구동향의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분류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경우 '그 외 대상'과 중복으로 빈도를 제시하였음

예: 토픽 3의 교사 및 현장 전문가(1건)의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도입국청소년(7건)에 포함

표 5에 정리한 토픽별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진로발달 개인 및 가정환경)의 경우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양육태도, 진로장벽 간 관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인 및 가정 환경 변인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11편). 더불어 t-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변량분석을 통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9편)와 중다회귀분석, 조절·매개효과 등의 회귀분석 계열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9편). 그 외에도 진로 관련 변인과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변인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분석한 종단연구(4편) 또한 수행된 바 있다.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를 살펴보면, 토픽 1과 달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양적 연구의 경우 토픽 1과 마찬가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진로 관련 변인과 사회적 자본, 고등학교의 진로교육활동과 같은 다양한 학교·사회문화 적응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밝힌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6편). 이외에도 회귀분석 계열(4편), 종단연구(4편)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질적 연구의 경우 근거이론, 사례연구, 내러티브 탐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결정 경험이나 진로탐색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의 경우 그 외의 토픽과 달리 문헌분석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직업진로 지원정책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다수 수행되었다(8편). 그 외에도 양적연구 방법을 통하여 정책 관련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3편)를 적용하거나, 변량분석(2편)을 통해 정책 참여 유무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의 양적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토픽 4(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연구(2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분석하거나(4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주제분석(3편), 내러티브 탐구(1편) 등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외에도 변량분석 등을 적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양적 연구가 소수 수행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네 가지 토픽에 대하여 총 64편의 양적 연구 중 30편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로, 해당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토픽별 연구 방법 분류

연구방법	토픽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진로발달 개인 및 가정환경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진로발달과 정책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양적 연구	기술통계	1	0	3	0
	변량분석 계열 ¹⁾	9	3	2	1
	회귀분석 계열 ²⁾	9	4	2	0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 ³⁾	11	6	0	1
	중단연구 ⁴⁾	4	4	0	0
	요인분석	1	0	0	0
	기타 양적연구 ⁵⁾	1	1	1	0
질적 연구	문헌분석	0	0	8	4
	근거이론	0	4	1	0
	주제분석	0	1	1	3
	사례연구	0	4	2	1
	내러티브 탐구	0	4	0	1
	현상학	1	2	1	0
	합의적 질적연구방법	0	2	0	1
	기타 질적연구 ⁶⁾	0	5	2	4
	프로그램 개발 연구	0	0	0	2
	혼합연구	1	0	1	0

1) t검증, 변량분석, 다변량분석 등

2) 중단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조절·매개효과 분석 등

3)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기반 모형 분석

4) 두 개 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

5) 머신러닝, 경향점수 기법

6) 구체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심층 면접의 결과나 참여관찰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 방법

5. 논문 발간 빈도 추이 분석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도입 시기에 따른 토픽별 논문 발간 빈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과제 주요 내용을 표 6에 정리하고, 각 시기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과 토픽별 논문 발간 빈도 추이를 그림 5에 정리하였다.

표 6에 정리된 시기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0~2012)에서는 유아의 언어 발달 지원,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과 관련된 과제는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반면 제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3~2017)부터는 ‘진학지도’의 측면에서 진로 지원 추진 과제가 제안되었으며(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 3차(2018~2022)를 기점으로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이 핵심 과제로 계획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어서 제 4차(2023~2027)에 또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3a).

표 6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정책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제 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01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제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01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제 3차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제 4차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2023~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이러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흐름에 따른 그림 5에 나타난 토픽별 논문 발간 빈도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도입된 직후 시기인 2011년을 기점으로 토픽 1(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환경)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기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해 개인 내적인 요인이나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토픽 2, 3, 4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다양하게 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2차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되고, 2015년부터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으로 분류된 논문이 활발히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토픽 3(진로발달과 정책), 토픽 4(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된 논문이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였다. 특히 본격적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주요 추진과제로 언급된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된 이후로도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활발히 발간되었는데, 2019년에 해당 토픽의 논문 빈도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는 2021년에 토픽4(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 토픽1(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환경)에 해당되는 논문의 발간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였다. 한편, 가장 최근인 2024년에 들어서는 토픽 2(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에 해당되는 논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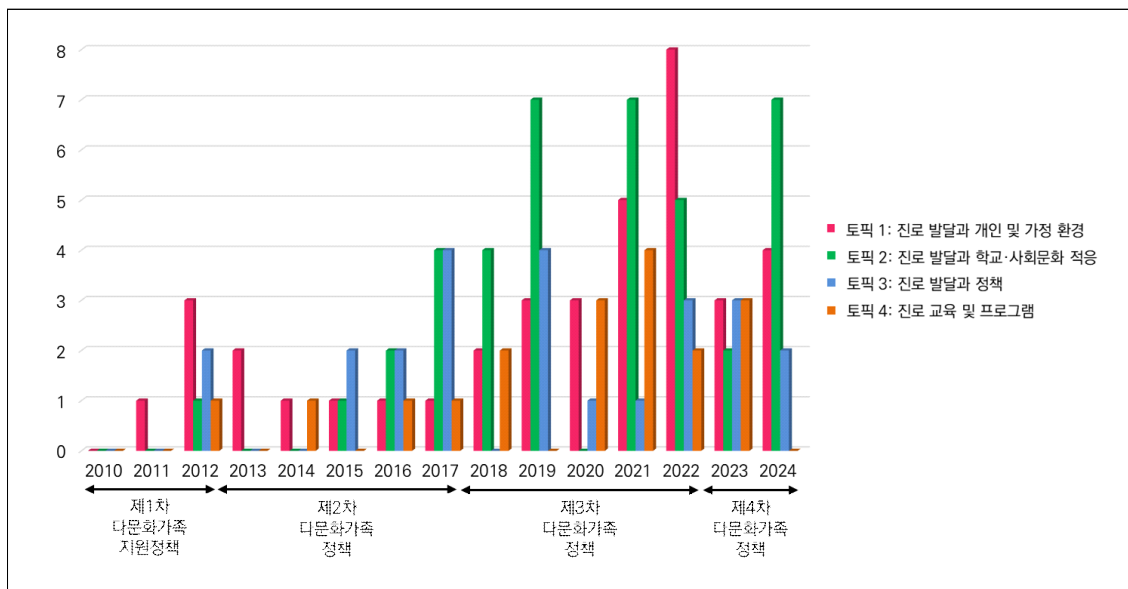


그림 5. 토픽별 논문 발간 빈도 추이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발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논문 발행 건수가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8년의 경우 8편이었던 논문 수가 2022년에는 18편의 논문으로 증가했다. 해당 시기는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된 시기(2018~2022)에 해당되며, 해당 시기 동안 64편의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다. 이는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책의 초점이 언어 발달 지원 등 영·유아 중심에서 청소년기 진로 지원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되는 등 정책의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64편의 양적 연구 중 30편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문 수가 증가한 2018년도 이후, 해당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2019년(4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여, 2021년(8편), 2022년(6편), 2023년(6편), 2024년(5편)까지 꾸준히 발간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연구기관에서 구축한 대규모 패널 자료와 같은 데이터 인프라가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이후로 2023년 논문의 편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해 진로개발 지원을 주요 대과제로 제안하고(관계기관 합동, 2023a),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향」(관계부처 합동, 2023b)을 발표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정책적·학문적 관심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키워드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목에 대한 빈도 기반 분석 결과, ‘진로 결정’이나 ‘진로 장벽’과 같이 진로발달을 나타내는 요인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특히 ‘진로 장벽’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지는 키워드로, 한국어 능력, 문화 적응, 정체성 혼란과 같은 요소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진로발달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대규모 패널 자료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기 이해나 진로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를 측정한 ‘진로 장벽’ 변인을 활용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가정’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환경은 청소년기 발달 환경 중 청소년의 발달에 기반이 되는 가장 근접한 발달 환경으로, 특히 다문화 및 이주배경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윤영 외, 2022) 진로발달에서도 가정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육’ 또한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난 주요 키워드였다. 이 또한 다문화 연구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윤영 외 2022; 이영신, 2023; 장은아 외, 2023; 채영란, 2021) 진로교육을 비롯하여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단순 빈도 수와 다르게 해당 키워드가 특정 논문의 초록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TF-IDF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의 키워드가 TF-IDF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청소년이나 한국어 교육, 상담과 같은 교육 및 심리적 개입 방안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 또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TF-IDF 값뿐만 아니라 빈도 수 기준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구의 연구 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세부 유형 중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일정 정도 성장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언어나 문화 차이로 인해 보다 한국에서의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며(양경은, 이령, 2024) 출신 배경 또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양한 성장배경을 지닌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교육부, 20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 3국’ 키워드 또한 TF-IDF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실제 빈도 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연구 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제 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등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세부유형에 대한 연구가 아닌, 중도입국청소년을 포괄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세부 유형을 대상으로 해당 집단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향후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에 대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개로 분류된 토픽에 대해서 각각의 토픽 키워드와 토픽에 할당된 논문을 검토하여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 환경’,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진로발달과 정책’, ‘진로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연구의 네 가지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로발달과 개인·가정환경’ 토픽은 전체 논문 중 약

31.7%의 비율을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정’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으며, 주요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자녀의 진로발달 특성 차이를 분석하거나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진로 관련 행동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의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한 빈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픽은 다른 토픽과 달리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즉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간 직업가치관 등의 진로 관련 의식이나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집단 간 수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변량분석 계열의 양적 연구 방법이 다른 토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수 수행되었다.

또한 가정 환경 외에도 개인의 내적 특성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해당 토픽에 포함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구조방정식 기반의 연구모형이나 조절·매개효과 분석을 포함한 회귀분석 계열의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진로 관련 변인과 다양한 개인 특성 간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양적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성취동기와 진로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성취동기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발휘하여 어려운 목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욕구, 경향성이며(Murray, 1938) 개인의 성장과 과업 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적 기제라는 점에서(정원식, 2001), 진로발달에 있어서 성취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전체 연구 중 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토픽에서는 ‘학교’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과 ‘적응’ 역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실제 해당 토픽에 포함된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 토픽 1과 달리 양적, 질적 연구가 모두 활발히 수행된 점이 특징적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등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자본, 고등학교의 진로교육활동 등 학교·사회문화 적응, 경험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실제 진로결정 경험이나 진로탐색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근거이론, 사례연구, 내러티브 탐구 등의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앞서 살펴본 ‘진로발달과 개인 및 가정 환경’, ‘진로발달과 학교·사회문화 적응’ 토픽에서는 공통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기반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거나, 회귀분석, 변량 분석 계열의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 방향을 논의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반면, 이러한 양적 연구 중 종단연구의 경우 그 외의 양적 연구 방법과 비교했을 때 미비하게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발달이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주배경청소년을 여러 시점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패널 자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종단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 대부분이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가 비이주배경청소년과 구분되는 차별적인 진로발달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상이한 두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검증하는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이나 두 집단 간의 체계적 차이를 통계적 기법으로 통제하여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경향점수 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차별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효과적인 교육 정책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발달과 정책’ 토픽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해당 토픽에 포함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픽의 경우 그 외의 토픽과 달리,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서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현장 전문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정책 및 지원 체계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더불어 해당 토픽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다른 토픽들과 달리 국가 교육정책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직업진로 지원 정책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한 문헌분석 방법의 질적 연구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관련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한 설문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거나, 변량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 유무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의 양적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정책 관련 연구는 문헌 검토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기존의 정책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의 보완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지막 토픽인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의 경우 앞서 살펴본 ‘진로발달과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적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으나, 정책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특정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에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 ‘체험’, ‘개발’과 같은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로 상담, 직업체험, 멘토링,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적인 교육 개입 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최근 발표된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향」에서는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정책의 중심점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관계부처 합동, 2023a; 관계부처 합동, 2023b) 현재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관, 기업 등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연구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문헌고찰 방식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진로 연구가 개인·가정환경, 학교·사회문화 적응, 정책,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정책의 변화와 연구 동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시기에 연구가 증가한 배경을 정책적 맥락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토픽에 할당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보다 확장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는 지점을 제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관련 논문의 초록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실제 키워드 기반의 보다 객관적인 토픽을 분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나, 연구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별 연구의 맥락이나 키워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논문의 초록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나 논의를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각 연구에 대한 맥락을 함께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변인 간 관계 탐색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간의 결과를 비교하고 종합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국외 연구를 포함한 국내·국외의 연구 동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의 연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예나, 박선영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진로태도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375-402. doi:10.15753/aje.2021.06.22.2.375
- 고상숙 (2018). 고교졸업반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멘토링. **학습장애연구**, 15(1), 113-143. doi:10.47635/KJLD.2018.15.1.113
- 교육부 (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23a).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23b).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서울: 여성가족부.
- 권희연, 김미선, 박중휘 (2016).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및 팀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역량, 학교적응 역량, 진로 성숙도의 차이 연구. **통합교육연구**, 11(1), 21-42. doi:10.26592/ksie.2016.11.1.21
- 김무정, 장사형 (2017). 다문화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발전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795-803. doi:10.14257/ajmahs.2017.03.37
- 김민수, 하수경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20, 81-107. doi:10.20497/jwce.2022.11.1.81
- 김민정, 정미경 (201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 비교 연구: 경기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0(2), 265-291. doi:10.17055/jpaer.2014.20.2.265
- 김영식, 정성수, 이기정 (2019).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4), 113-135. doi:10.46967/jefe.2019.28.4.113
- 김지연, 이윤희 (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2009-2019.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205-1230. doi:10.22251/jlcci.2019.19.19.1205
- 김진선, 김영순 (2020).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한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8(3), 153-177. doi:10.22327/kei.2020.38.3.153
- 남연주, 안상근 (2017).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4), 1-25. doi:10.32341/JCER.2017.12.30.4.1
- 류성창, 김성기, 이윤옥 (2017). 탈북학생의 진로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5(1), 47-70. doi:10.22327/kei.2017.35.1.047
- 류성창, 김재우, 이윤옥 (2016).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6), 451-481. doi:10.24159/joec.2016.22.6.451

- 문희정, 김은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교차 지연 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4(4), 125-149. doi:10.32341/JCER.2021.12.34.4.125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doi:10.18612/cnujes.2012.33.2.145
- 민장배, 송진영 (2024).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3(1), 283-303. doi:10.30974/kaice.2024.13.1.12
-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209-234. doi:10.14816/sky.2021.32.3.209
- 변숙영, 한상근, 유진영, 이정민, 김효진, 최영렬, 이수경 (2022).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 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선혜연 (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0.
- 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윤정, 양미선, 최혜리, 이창원, 최서리, 김철호, 이택건, 권영실, 박미화, 이상지, 이규용, 강동우, 김이선, 최윤정, 주수인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정책보고서 2018-2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지민, 장훈성 (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직업교육기관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2), 191-213.
- 양경은, 이령 (2024).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경험에 관한 연구: 해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6(2), 83-111. doi:10.51155/kamw.2024.6.2.83
- 양계민, 변수정, 조혜영, 김이선, 이민영(2020). **포용사회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1-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doi:10.22251/jlcci.2019.19.10.121121-140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 입국 청소년의 진로 의식, 진로 준비 행동과 사회적 지원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doi:10.25152/ser.2012.60.2.517
- 윤영, 한승규, 이창봉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동향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25-50. doi:10.30974/kaice.2022.11.2.2

- 윤형준 (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 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 21, 10(6), 369-378. doi:10.22143/HSS21.10.6.27
- 윤홍주,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12), 234-245.
- 윤희진 (2020).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 멘토링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1), 27-50. doi:10.30974/kaice.2020.9.1.27
-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53-78. doi:10.20993/jssw.55.3
- 이래혁, 장혜림 (202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773-784.
- 이영신 (2023).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관련 이슈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6(3), 1-33. doi:10.14328/mes.2023.9.30.1
- 이민경, 이수정 (2011).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1-37.
- 이민철, 조현구 (2023). 교육데이터를 통한 다문화 교육정책 평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와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82, 92-120. doi:10.35431/minjok.82.5
-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doi:10.21509/kjys.2018.11.25.11.35
-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 이형하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성취동기 간 종단적 상호효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 589-604. doi:10.5392/JKCA.2023.23.01.589
- 장은아, 백예은, 정혜원 (2023).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4(1), 91-122. doi:10.14816/sky.2023.34.1.91
-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277-297. doi:10.30974/kaice.2021.10.5.12
- 장한업 (2021).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대책(2006~2021)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1-21. doi:10.30974/kaice.2021.10.6.1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정원식 (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정윤희, 전주성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167-185. doi:10.22327/kei.2019.37.1.167
- 진의남, 김선혜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안. **인격교육**, 6(2), 73-100.
- 채영란 (2021).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41(6), 333-350. doi:10.18023/kjece.2021.41.6.014
- 최보람, 유진이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 아동청소년연구**, 1(1), 87-111.
- 홍영균 (2017). 4차산업혁명시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방안.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3), 89-121.
- Drieger, P. (2013).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method for visual text analytic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9(-), 4-17. doi:10.1016/j.sbspro.2013.05.053
- European Union. (2009). *Council Conclusions of 26 November 2009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 (2009/C 301/07)*. European Union.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trieved February 15, 2023, from <https://dl.icdst.org/pdfs/files/25a6d982e80e1db7a4ebf7eeca4e0ec.pdf>
- Inzalkar, S., & Sharma, J. (2015). A survey on text mining-techniques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 Engineering*, 24(-), 1-14.
- Landherr, A., Friedl, B., & Heidemann, J. (2010). A critical review of centrality measures in social networks.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2(6), 371-385. doi:10.1007/s12599-010-0127-3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Univ Press.
- OECD & EU. (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OECD Publishing.
- Rehurek, R., & Sojka, P. (2011). *Gensim—statistical semantics in python*. Retrieved from gensim.org.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NY: Hayser.

ABSTRACT

A trend analysis of career research on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Baek, Yeheun**· Chung, Hyewon***

This study conducted a text mining analys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abstracts of 120 research papers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by year revealed a general increasing trend since 2010, despite temporary declines in certain years. Second, frequency-based analysis of titles and abstracts identified “career barriers,” “family,” and “education” as the most representative keyword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ird, topic modeling analysis categorized research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into four main topics: ‘Career Development and Personal & Family Environment’,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 Socio-Cultural Adaptation’, ‘Career Development and Policy’, and ‘Career Education & Programs’. Fourth, while early studies primarily focused on the personal and family environment of adolesc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2nd and 3r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research on school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as well as career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y highlighting unexplored areas and recommending methodologies and topics to improve the levels of career development support available for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Key Words: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career development, text mining, topic modeling, keyword network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7372)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byeunn7@gmail.com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chw7@cnu.ac.kr